

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5)

3.2.3. 석유파동과 70년대 후반

1973년 10월에 있었던 석유파동은 세계경제 전체와 그것의 구성원인 각국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었다. 우리경제라고 이것의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화섬산업도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석유류의 비석유류에 대한 상대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유가격과 원유를 직접적으로 쓰는 석유제품은 물론 석유와 관련된 중간재를 쓰는 모든 제품의 가격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화섬생산의 원료는 주로 석유화학공업 또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펄프공업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이들의 생산물가격이 석유가격의 4배 상승과 더불어 높아지게 되었으니, 이들을 써서 생산하는 화섬제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됨은 당연했다.

석유파동의 영향의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석유가격 상승에 동반하여 석유류를 원료로 쓰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이것이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물가상승은 석유 수출국이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렸고, 이러한 실질소득의 하락은 수요의 감퇴를 가져와 일반적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기침체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화섬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작용하였다.

공급측면에서의 원가상승이나 수요측면에서의 수요감퇴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악화 속에서이지만 화섬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우선, 석유류 수요 중 천연석유에 비해 화학석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천연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포화에 이르러 더 이상 새로운 수요가 개발될 여지가 적었던데 비해 화학석유에 대한 수요는 가정용수요, 산업용수요, 그리고 천연석유와의 혼합에 의해 새로이 나타나는 의류용수요 등 여러가지 용도에 의해 확장되고 개발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에는 화석생산에 있어 기술개발에 따르는 원가절감이 나타나 있었고 그것이 천연석유 대비 상대적으로 싸진 화석이 천연석유를 대체하게 함으로써 화석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도 추가 언급되어야 하겠다.

다음, 화석산업이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때 우리 화석산업의 성장에 한 요인으로 되었다는 점이 적시되어야 하겠다. 일찍이 공업화를 이루어 상당한 공해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선진국들은 공해산업의 하나로 인지되던 화석생산시설에 대해 별로 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화석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선진국으로부터 화석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을 받거나 합작투자를 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국내적으로도 화석생산을 늘이려는 투자에 대해서는 좋은 여건이 전개되고 있었다. 석유파동 이전에 결정된 중화학공업화전략은 계속 유효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른바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들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도 해외로부터 돈을 차입해다 투자를 계속하고 고성장을 추진하는, 그래서 차후 외채에 의한 성장(debt-led growth)이라고 성격지워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정책을 채택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의 확보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용이한 처지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공업국인 우리가 선진국이 이전하여 한다가거나 스스로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면서 수요도 상당히 보장된 산

업인 화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투자에 따라 화섬산업은 1974년말 당시 아크릴 158.5톤, 나일론F 156톤, 폴리에스테르SF 200톤, 폴리에스테르F 91톤, 비스코스F 32.2톤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1975년에 들어서서도 아크릴에서 태광산업의 30톤 및 한일합섬의 35톤, 나일론부문에서 동양나일론의 19톤, 아세테이트부문에서 선경화섬의 8톤, 폴리에스테르 F부문에서 동양폴리에스테르의 30톤, 비스코스SF부문에서 세진레이온의 27톤 등의 증설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확충의 결과 1975년말에는 아세테이트, PVA를 제외한 화학섬유 제조시설은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상당량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세계 8위의 화섬생산국으로 될 만큼 공급능력이 신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성공적인 수입대체를 했다고 평가 받게 되었다. 단 이러한 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장의 규모는 구미의 경쟁상대인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이른바 국제경쟁을 위한 최소단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는 있다.

생산시설이 마련되어있을 때 그것의 가동률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 측 사정이다. 1974년에 들어 그 이전의 투자로 생산능력은 늘었는데 범세계적 불황에 따라 수요가 주춤하는 동안 화섬산업의 평균 가동률은 81%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가동률 저하는 1975년에 들어와 즉각 극복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나라밖에서의 다소간의 경기회복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대만 등 다른 신흥공업국과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한 70년대 중반의 한국화섬산업은 높은 가동률을 누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졌다.

화섬산업이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국내수요의 증가 이외에 섬유류수출증가를 밑받침하는 중간재로서의 화섬에 대한 수요, 즉 간접적 수

출수요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요증대는 종래와 같이 메리야스, 편직물 등의 수출과 관련된 수요가 왕성했던 것에 더하여 면방, 소모방제품에 대한 수요가 혼방제품에 대한 수요로 바뀌고 혼방기술이 향상되면서 혼방섬유의 원료로서의 수요가 가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수출수요가 괄목하게 늘어나자 이는 즉각 내수수요를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즉 국내생산과 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9년에는 71.5%이다가 1974년에는 238%, 1975년에는 379%로 되어, 수출수요가 내수수요를 크게 능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비스코스 SF 등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이 화섬생산 및 수출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화섬생산에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가격이 오르게 되자 미국과 같이 상당한 정도 원유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았으나 일본이나 서구 등 원유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데, 한국등 신흥공업국도 원유측면에서 불리한 면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비용이 값싸다는 것과 공해방출에 대한 기준이 덜 엄격해 공해방지비용을 덜 지출해도 좋았던 것이 신흥공업국에게 비교우위를 가져다 주었다.

앞에서 제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화섬산업의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석유화학투자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에는 한국카프를락탐이 준공되어 총수요의 20%정도를 국내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1972년에 준공된 동서석유화학의 AN 모노머 공장이 1973년이래 총수요의 1/3정도를 공급하게 되었다. 나아가 폴리프로필렌섬유의 원료가 되는 PP 레진은 1975년경 총수요의 77% 정도를 국내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공급의 부족분과 국내공급시설이 전혀 없는 비스코스 원료인 화학목재펄프, 아세테이트의 원료인 아세테이트 플레이크, PVA의 원료인 PVA파우더, 폴리에스테르의 원료인 TPA, EG 등은 전량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화섬생산은 계속 증가하나 그것의 원료인 국내생산은 반드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섬원료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 원료생산공장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자급률이 올라갔다가 화섬생산이 활발해지면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화섬원료자급률은 1972년 3.9%의 낮은 수준이다가 원료공장이 가동하게 된 1973년에는 일시적으로 23.6%로 상승한 뒤 그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1978년에는 16.8%로 낮아지게 되었다.

전량 수입해야 하는 원료의 가격은 수입가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 생산되는 카프롤락탐이나 AN 모노머의 가격은 앞에서 설명한 이중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국내 생산되는 원료의 내수용가격은 수출용가격에 비해 높게 마련이고, 후자는 수입가격에 근사하였으나 규모의 영세성, 로열티 지급 등의 요인에 따라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이러한 사실상의 3중 가격구조하에서도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이러한 사실상의 3중 가격구조하에서도 수입가격은 해외시장의 수급 사정에 의존하여 1974년초에는 수입가격이 국내 공급가격을 크게 능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후 석유류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추이에 대응하여 이들 원료의 국제시세는 1978년까지 하강하는 추이를 보였다. 원료의 수입시장으로서는 목재펄프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TPA에 있어서는 미국 등이 중요했다. 그러나 여타 원료는 95%정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기에 우리 화섬산업도 일본의 수출가격 결정 행위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수입선다변화를 획책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카프롤락탐이나 AN 모노머 생산시설의 증설이외에 삼성석유화학에 의한 TPA공장의 신설도 기도되었다.